외교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3-115
배포일시	2023.2.10.(금)	담당부서	국제기구국
담당자	이철 국제기구국 협력관 (02-2100-7224)		

제3차 한·영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양국 관계 중요축으로서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 강화 합의 -

□ 우리측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영국측 윌 미들턴(Will Middleton) 외무성 사이버 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3차 한·영 사이버정책협의회가 2.10.(금)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협의회에는 한측 외교부, 국가안보실, 과기부, 국토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영측 외무성, 과학혁신기술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산업통상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총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 대표는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양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억지 전략, △유엔, G20, ITU, WSIS 등 다자무대에서 협력 강화 방안, △사이버안보 관련 민간분야와의 협력, △스마트시티(Connected Places), 사물인터넷(IoT) 및 사이버 인력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외에도, 핵·미사일 관련 정보·기술 탈취가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에 우려를 같이 하였다. 또한, 양측은 여타 국가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조현우 국제안보대사는 오늘 협의회에 앞서 2.8.(수) 오후 「젬마 언고드-토마스(Gemma Ungoed-Thomas)」 영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위협·사이버안보 비서관을 면담하였다.

ㅇ 양측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악의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지·대응 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행사 및 면담 사진. 끝.